

제2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1. 12. 8.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12월 8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고 승 범 위 원 장

박 정 훈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정 은 보 위 원

김 태 현 위 원

이 승 현 위 원

김 용 진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1년도 제21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8차 임시 및 제22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 ☐ 2021년도 제21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8차 임시 및 제22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既송부한 자료로 보고에 갈음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438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동 안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22.2.18. 시행)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

- (위원) 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2개로 나뉘져 있고, 의결할 수 있는 건들이 다르던데, 장기적으로는 이사회로 통합하는

방향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임.

-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만 운영위와 이사회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금보험공사 등 다른기관들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예금보험공사 이사회 비상임이사님들 중에서도 통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과 이사회의 기능은 합쳐질 수 없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음.
- (보고자) 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운영위와 이사회를 구분하고 있는 데, 이는 기금관리 주체나 기금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됨. 공운법이나 국가재정법에도 관련 조문이 있어서 개정을 하려면 기재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위원) 과거에도 늘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번에 법률개정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 바뀌는 것 같음. 과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함.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사회가 의사결정의 최고 기구로써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적인 의사결정 수준을 넘어서서 거시경제의 정책의사결정과 필요한 구조조정 자금에 대한 관리조달하는 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결정을 넘어서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 이원체제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더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

단이 될 때는 이원화된 것을 당연히 이사회로 통합을 시켜야 되겠으나, 그 전까지는 현재의 이원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함.

- (위원) 이 문제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측면이 있는 것 같음.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나중에 기재부와 기획 될 때 한번 논의해 보겠음.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도 그렇고 다른 곳도 그러함.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계속 유념하면서 관계부처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439호 『(서울)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서울)제이티친애저축은행의 신용정보법 제18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0만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440호 『동양저축은행(주) 등 2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동양저축은행(주) 등 2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예비허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441호 『(주)KB국민카드 등 2개사의 신용정보업 본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KB국민카드 등 2개사의 신용정보업을 본허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 의결안건 제442호 『코리아크레딧뷰로(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코리아크레딧뷰로(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웹서버 관리대책 및 망분리 이행을 미준수하여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망분리 문제가 앞으로 계속 더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망분리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음.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으로 들어오고 핀테크 기업들이 계속 활성화 되면, 더군다나 지금 IP 환경 자체가 데브옵스(DevOps*)라고 해서 개발과 운영이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금융 쪽의 디지털 전환이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음.

* DevOps : Development 와 Operations의 합성어로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병행 및 협업하는 방식

- (위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음. 사실 내일 제가 핀테크 업계와 간담회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도 중요한 이슈 중에 망분리 문제가 있고, 그 지적이 계속되어 와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음.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과 상의하겠으니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기 바람.

- (위원) 알겠음. 그렇게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43호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의 신청에 따라 종합신탁업 인가를 폐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44호 『키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키움증권(주)이 특정금전신탁업의 개인 대상 온라인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탁업 인가시 부여한 인가조건을 변경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45호 『교보생명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교보생명보험(주)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46호 『엑셀금융서비스(주) 보험대리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험대리점 엑셀금융서비스(주)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47호 『(주)공감랩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에서 내용을 설명함

※ '21년도 제1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지정내용 변경을 심사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로,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에서 5-2조(시가산정 방식) 나목에 대하여 추가 특례 인정을 신청하는 내용

○ (위원) 50세대 미만에 대해서 담보가치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인정한 다른 업체들이 기존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업체들은 이번 시가산정방식에 대한 규제샌드박스가 인정이 안 되었던 것 같음.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빅밸류 같은 데는 몇 개월 전에 규제샌드박스 연장을 했지만 시가산정방식에 있어서의 특례

는 인정하지 않았었음. 공감랩만 특례를 인정해준다면 나머지 업체들의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주)공감랩으로 힘을 실어주는 식이 될 수 있어서, 규제샌드박스 허용에 있어서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은가 해서 여쭙봄.

- (보고자) 이 시가산정방식 관련한 규제특례는 (주)공감랩에서 최초로 신청을 했음. 은행들 중에서는 그나마 (주)공감랩과 현재 협의 중인 신한은행이 가장 적극적인 편이고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아서 서비스 제공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번 (주)공감랩에 대해서 추가특례가 인정이 되면 타 업체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동일하게 신청하게 될 것임.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정을 해 주면 말 씀하신 그런 우려는 없지 않을까 생각함.
-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지?
- (보고자) 그러함. 다 알려지게 되고, 현재 4개 업체가 있는데 현 상황 등에 대해 은행들에게 충분히 알려 줄 계획임.
- (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 2019년 6월에 우리가 지정을 해준 것인데 아직까지 서비스가 안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음. 어떤 이슈 때문에 서비스가 계속 지연이 되는지, 은행들은 왜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는지, 거래수량 자체가 적고 건수가 적기 때문에 은행에서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서비스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유가

뭔지를 알아보고 풀어주면 좋겠는데, 혹시 조사된 바가 있는지?

- (보고자) 업체 쪽과 은행 쪽에 문의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은행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후에 가계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50세대 미만 KB시세가 없는 아파트도 많지 않은데다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신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은행 입장에서 관리가 강화되어서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됨. 그리고 부가조건에 모델의 적합성을 해당 은행이 검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 검증하는 것에 대한 실무적인 시간도 일부 소요됐다고 얘기하고 있음.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신한은행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 특례가 되어서 신한은행이 우선적으로 이 서비스 활용을 시작하게 되면 다른 은행들도 이런 내용들을 보고 좀 더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음.
- (위원) 알겠음. 계속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위원)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하는 것과 조건 변경하는 것을 꼭 지켜봤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서비스를 출시하지도 않았는데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인 것 같음. 왜냐하면 지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적어도 6개월 이내에는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전

제 하에 지정을 해 줘야 맞지, 무조건 지정받고 나서 한참 있다가 서비스도 안 되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최초에 이분들이 신청을 할 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신청부터 하고 보자, 아니면 남이 하기 전에 먼저 선점하자, 이런 것 같음.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서비스 신청을 하고 기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출시가 6개월 이내 안 되는 부분들은 출시가 어떤 식으로든지 담보가 되거나 이루어지고 나서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신중하게 혁신서비스 신청이나 연장, 조건 변경 신청을 하지, 무조건 혁신서비스라고 해서 당연히 연장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더 엄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함.

- (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음. 혁신금융서비스 여러 개의 지정기간 연장 안건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음. 2년 지나서 자꾸 연장을 하는데 작년엔 사실 코로나19 위기상황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과 무엇이 직접 연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2년 연장을 또 하고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곳들이 있는 것 같음. 혁신금융서비스 담당하는 부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으면 좋겠음. 서비스 출시도 안 되고 계속 시간 지나고 다시 또 연장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48호 『(주)카사코리아 및 (주)국민은행 등 4개 신탁 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1년도 제1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기간의 연장(2년)을 신청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49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비카드여전사의 레버리지 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

- (위원) 레버리지 축소가 자칫 대출축소라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

- (보고자)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자본 분의 총자산인데, 자산 축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충실하게 하자는 의미임.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을 10배에서 8배로 조정할 때,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레버리지 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임

- (위원) 최근에 보험사, 여전사 등의 PF대출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동 규정 개정안은 시의 적절해 보이며, 특히 모니터링 지표를 개편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50호 『(주)유진저축은행과 유진에스비홀딩스(주)의 합병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유진저축은행의 유진에스비홀딩스(주) 흡수합병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51호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주)유진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케이티비투자증권의 유진저축은행 주식취득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전 심의

- ☐ 보고안전 제53호 『‘20년말 기준 (주)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에서 내용을 설명함

※ ‘20년말 기준 4개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에 관한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 보고안전 제54호 『2020년 12월말 기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대출자자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20년말 기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대출자자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 및 자료미제출 금융회사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을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 보고안전 제55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결과 보고』, 제56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결과 보고』, 제57호 『한

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 개정결과 보고』을 일괄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금융위원회 제22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50분 폐회)